

# 하느님의 왕국



## [ 8 ]

하느님을 모르는 인생의 욕망을 거꾸로 향하여 가는 자가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가신 길을 뒤 따르는 그리스도의 양(羊)이요 종입니다.

서로 자기가 많이 취하려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반대로 주는 자가 되고 ㄱ 상대를 적으로 삼아 치고 때리는 살벌한 투쟁의 세상에서 반대로 맞아주는 자가 되며 ㄴ 자기 쪽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세상에서 반대로 자신의 덕행을 숨기는 종류가 됩니다 ㄷ.

이 세상에서 자기 쪽의 부귀와 향락을 욕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요 ㄹ.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 되어서 천주께 기도하며 섬기는 심성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와는 반대입니다 ㄴ.

메시아를 시인하는 만큼 ㄹ 자기 쪽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ㄷ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주를 위하여 인생의 핍박과 모욕을 기꺼이 받습니다.

천자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우대를 받는 자리를 ㄹ 탐하지 않고 도리어 말석에 앉아 ㄷ 형제를 우대하고, 큰 자가 되어서 남을 부리려 하지 않고 작은 자가 되어 ㄷ 형제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 시키지 않고 반대로 주의 뜻을 받아들여 따르는 ㄷ 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라도 말씀을 따라 하고 ㄷ 기도를 하여도 남이 보고 칭찬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은밀히 하며 ㄷ 강박하지 않고 온유한 ㄷ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자께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르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것과 같이

ㄱ.마5:40~42 ㄴ.마5:39 ㄷ.마6:1~6 ㄹ.요일1:16 ㅁ.마16:20 ㅂ.마10\*32 ㅅ.마16:24 ㅇ.마23:6 막12:39 눅20:46  
저.눅14:10 ㅈ.마18:4 눅9:48 ㅊ.요10:3, 14~16 ㅋ.마5:37 ㅋ.마6:6 ㅎ.마5:5, 11:29

그도 어린양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ㄱ 양이어서 그리스도와 그는 씨 종이 같은 양(羊)입니다.

높고 크며 강한 쪽이 양(陽)이요 그 반대로 낮고 적으며 유순함이 음(陰)입니다. 높고 크며 힘있는 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물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요. 그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종류인 까닭에 체질적으로 누구를 진심으로 떠받들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점지하셔서 ㄴ 그에게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와는 ㄷ 거꾸로 행하는 것은 그의 속에 자기가 있지 않고 선택하신 하느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ㄹ 받은 자는 그의 속에 하늘의 씨가 잉태된 것이어서 언약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해산할 여인입니다 ㄴ.

처음의 아담은 여자의 의미와는 반대였습니다.

성서에 태어난 사람을 붉은 혈기를 붙여 적신(赤身)이라고 ㄹ 하셨듯이 사람(아담)이라는 히브리어휘는 적색을 형용하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져 난 남자의 뼈와 살이면 ㄷ 남자는 흙에서 취하여져 생겨났기 붉은 흙의 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ㄹ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신은 혼이 지배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임한 생기로 말미암아 산 혼이 되었던 그 생명이 죽었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구원이 절실했던 아담이 비로소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먼저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이라던 아담이 이제는 아내와 같이 나중이 된 것입니다.

ㄱ. 요10:3, 14 ㄴ. 요15:16 ㄷ. 요17:16 ㄹ. 롬8:9 ㅁ. 계12:1~2 ㅂ. 욥1:21 렘49:10 애1:18 겔16:7, 22, 23:14 ㅅ. 창2:23 ㅇ. 창3:19 ㅈ. 창2:24

뱀의 후예들은 사리를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나 ㄱ,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ㄴ 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육신의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계명이 첫째이고 ㄷ 그 다음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계명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이 으뜸이어서 ㄹ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하느님 앞에 불효가 가장 앞서는 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ㅁ 양식입니다. 하느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성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ㅂ 눈은 ㅅ 달리 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담은 남녀를 선후로 분별하여 인류의 법도를 세웠는데, 그 법도에 하느님께서도 『이러므로』 라고 하셔서 ㅇ 그 차별을 시인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상대를 차별하는 남자에게 명하시기를, 이러므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어서 남자가 먼저이니 술선하여 자신의 입지를 떠나 나중 쪽으로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뜻이 됩니다.

말씀이 계시니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나중 몸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쪽의 종류가 ㅈ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자가 되었으나, 그는 자신으로부터 났으니 자기의 것이라고 하던 여자를 거꾸로 『모든 산 자의 어미』 라고 ㄷ 고쳐서 불렀고 이에 하느님께서 아담 내외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가 죽으로 인생의 별거벗은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ㅋ.

자신이 상대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ㅌ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따르는 종류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죽은 자가 ㅍ 된 것이 바로 자신이 처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 본위의 주체성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ㄱ. 렘6:10 요7:24 8:15, 43, 47 계2:17 ㄴ. 창2:24 ㄷ. 마22:38 ㄹ. 출20:12~17 ㅁ. 계2:17 ㅂ. 사6:9~13 마3:16 계2:7, 17, 29 ㅅ. 계3:18 ㅇ. 창2:24 ㅈ. 요13:14 ㅊ. 창3:20 ㅋ. 창3:21 계3:18 ㅌ. 마7:1~2 ㅍ. 창2:17 마8:22

이제 아담과 그 아내는 다같이 나중이어서 하느님을 따르는 양(羊)이 되었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아담에게서 났으나 산 자는 여자에게서 나는 생명입니다. 죄를 짓고 죽은 자가 된 그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ㄱ 다시 산 자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서에는 몸에 털이 많고 ㄴ 전신이 혈기로 붉으며 거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 들 사람이 되어 들 사냥을 하던 여성과 같이 피부가 매끈하고 성품이 종용(從容)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ㄷ 집안에서 팔죽을 쑤던 야곱이 어미의 태 중에서부터 서로 싸운 것을 말씀하셨고 이를 일컬어 두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ㄹ.

한 핏줄, 한 태에서 난 쌍둥이지만 그들의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세상 만민이 혈육은 다 한 조상, 한 핏줄이나 자신을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들짐승(野獸)의 계통과 그 반대로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쪽을 희생하는 양의 계통이 있습니다.

들에서 ㅁ 아우를 쳐죽이고 성을 쌓은 가인의 줄기가 세상에 먼저 나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요. 그

의 근본이 들짐승이라고 말씀하신 옛 뱀입니다.

성서는 백마를 타신 천자와 이 붉은 세력과의 전쟁의 줄거리입니다.

성서에 붉은 용이라고 하신 옛 뱀은 실물이 아니라 비유로써 가르치시는 상징이요, 역경(易經)에서와같이 용은 선악과는 상관없이 음양의 양을 상징하는 물형(物形)입니다.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음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이 땅에 사는 나 자신이 양이 되면 하느님은 나의 그늘이 되나 내가 음이 되면 나의 눈에 하느님이 나의 양(陽)이시어서 주의 낮을 올바르게 대면하는 관계가 됩니다.

ㄱ.마16:24 막8:34 ㄴ.창27:11 ㄷ.창25:23~27 ㄹ.창25:23 ㅁ.창4:8 ㅂ.창3:1 ㅅ.계12:3, 20:2 ㅇ.계12:9, 20:2  
ㅈ.마12:34, 23:33 요8:43~44 ㅊ.창4:7

하늘에서는 유일하신 천부와 유일하신 천자께서 계셔서 일 양과 일 음이나 하느님께서 그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땅에서 사는 인생이 본받아야 할 언행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신랑이 계십니다.

그 입 만이 인생이 따라야 할 인생의 양(陽)이어서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붉은 불 뱀에 죽을 사람이 양망하면 살아나는 놋 뱀이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어린양을 황룡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나, 본시 아담은 일곱째 날이 있는 후에야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기가 임하여서 거듭 태어난 산 혼이었던 것이어서 하느님의 씨 종이요.

성(姓)씨가 하느님의 씨인 까닭에 하느님의 낙원에 거처하며 땅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임금이었기 장차 있을 왕들의 모형입니다.

하느님이 남편이 되시고 인생이 여자가 되어 생산된 아들들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같은 날 흙에서 취하여져서 창조되었기 같은 속성을 가진 생명이나 환웅의 언약을 지켜야 곰이 하느님 아들의 신부가 된다는 극동의 전설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구속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 하느님의 신을 받은 인생도 때가 차면 거듭나서 들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흠 없이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땅에서 왕 노릇 할 자들이 하느님의 처음 열매입니다.

시내 산에서 돌 판에 써 주신 계명도 사랑을 가르치신 천명이고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주신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오직 뿐인 한 길(道)을 행하여서 도통 하는 것입니다.

ㄱ.마25:6 ㄴ.민21:9 ㄷ.요3:14 ㄹ.요20:22 ㅁ.눅22:30 계1:5, 5:10 ㅂ.사54:5 계21:9 ㅅ.출31:13 요17:17 계20:6  
ㅇ.눅21:28 계14:3 ㅈ.창3:22 ㅊ.요17:21 ㅋ.계14:4 ㅌ.마5:48 ㅍ.마22:37~40 ㅎ.요13:34, 15:12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어린양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그는 어린양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어서 그는 원하는 대로 조화를 이루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도통이 시몬과 같이 목숨을 버려서 순교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거듭나는 것이고 변화함도 거듭나는 것이요, 죽어도 초자연의 몸으로 부활하여 살고, 살아 있는 동안 언약의 날을 맞는 일꾼들은 그대로 살아서 조화를 부리는 존재로 홀연히 변화합니다.

육신으로 난 생명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올챙이와 개구리의 명칭이 다르듯, 이름이 바뀌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께서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붙잡은 야곱을 치셨습니다.

떼어버리시려고 야곱의 환도 뼈를 치셨건만 야곱은 그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인내로 버티며 복을 구하였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어린양의 여자가 남자를 생산할 때 당하는 해산의 고통이요, 인생이 하느님의 첫 열매로 거듭 태어나기 전에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잠시 버림을 입어서 ◦ 세상에서 비난과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이 그 반대로 뒤집혀 영원히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방향입니다.

ㄱ. 요14:12, 15:7   ㄴ. 요11:26   ㄷ. 고전15:52   ㄹ. 계2:17, 3:12   ㅁ. 창32:28   ㅂ. 창 32:24~25   ㅅ. 미4:10   ㅆ. 요16:21   ㄷ. 계12:2  
ㅇ. 사54:7~8   단12:7   마27:46   막15:34

하느님의 어린양께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쪽의 희생만을 인생에 가르치시고, 어린양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이 인생도 당신처럼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ㄱ, 붉은 권력이 군림하는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ㄴ 갖는 것이 하느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하느님을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실상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ㄷ 때문입니다.

어둠이 본래 가진 자기의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날에 권세를 받은 자가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떠나는 가인이 가진 생존의 표는 ㄹ 실상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있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만 산다고 하느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인 생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실상은 가련한 존재입니다 ㅁ.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나중이 먼저가 되어 뒤집어짐이 음양이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ㅂ, 그 음양을 더욱 소상히 밝히신 것이 창세기의 일장과 그 일장이 뒤집혀서 전개되는 창세기의 이장입니다. 창세기 제 일장은 첫째 날이 창조의 근본이 되어서 ㅅ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를 말씀하신 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매 번째 날마다 하느님의 주장하신 전반과 아드님의 순종하신 후반이 서로 짝이 되어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에 탄생하신 빛이 어둠을 통과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한 바퀴 뒤바뀌는 음양이어서 하느님의 날들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날 중 가운데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이 땅을 비추게 하셔서 전반에 지어진 천지와 초목을 상대하여 보는 생물을 전반과 역으로 지으시어서 전후반이 음양으로 서로 상응하게 하셨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ㅇ 형상입니다.

ㄱ. 계14:4   ㄴ. 요일 5:4~5   ㄷ. 요19:11   롬13:1   ㄹ. 창4:15   ㅁ. 시92:7   ㅂ. 계12:5   ㅅ. 계3:14   ㅇ. 창1:31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여섯째 날을 하느님 일의 완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임하여야 비로소 완성이요, 그 일곱째 날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일장 전체가 거꾸로 뒤집힌 창세기의 이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일장은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로 끝나는 장이어서 이를 선천이라 하고 이장은 뒤집혀서 사람보다도 나중이신 일곱째 날의 인자께서 ㄱ 으뜸이 되시니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임하시는 생기를 받고 신선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ㄴ, 그 거듭난 하느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새 차원의 세상이 ㄷ 전개되는 것이어서 이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이장은 일곱째 날이 선두가 되어 있어서 일장과 뒤집혀 있습니다. 능동의 말씀이 뒤집히면 수동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의 이장에는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ㄹ 일장에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동의 말씀과는 뒤집혀 있습니다. 일장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신 ㄱ 첫째 날이 시작이어서 둘째 날도 보시고 셋째 날도 보심으로써 진행하시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으시어서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ㄴ 바까지이나, 이장은 뒤집혀서 당신의 아들과 천지 만물을 보신 하느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시작이어서 천지의 창조된 수동의 말씀이 계시고 일장에서는 사람이 만물 중 제일 나중이나 이장은 뒤집혀서 산 혼이 먼저 등장하게 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ㄱ.마12:8 ㄴ.창2:7 ㄷ.창2:8 ㄹ.창2:4 ㅁ.창1:4 ㅂ.창1:31 ㅅ.창2:4-7

비도 사람도 없었기, 땅에 초목도 밭에 채소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시어서 천지가 그 지어진 구실을 하지 못하였는데 천지 사이에 천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 비로소 위에서 비가 내리는 하늘이 있고 그 비를 받는 아래 땅이 있어 천지 사이에 초목과 채소가 나는 자연이 있다고 하신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보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오, 사람의 눈이 있어서 그 안목만큼 분간하니까 비로소 천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와는 달리, 천지가 있고 일월이 있는 여건이 있어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계신 자를 볼 수가 없는 것이어서 ㄱ 하느님께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시나 ㄴ 천지 만물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는 관점과 만물이 있고 인생이 있는 후에 사람이 보는 관점은 서로 대칭이어서 다릅니다.

기식(氣息)이 없어서 활동하지 않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초목의 삼재는 반대로 기식이 있어서 ㄷ 활동하는 생명이 마주하여 보는 상대 쪽의 삼재가 있어서 비로소 있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없어서 사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에게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어서 세월이 있을 수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서 천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지가 헛것이고 일월이 헛것입니다. 상하도, 명암도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의 관점이오, 마주 보고 증거 하는 사람이 없이는 유무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날은 천지 만물이 있기 전이고 일곱째 날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 후여서 처음인 첫째 날과 마지막인 일곱째 날은 천지 만물을 증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ㄱ.출33:20 요1:18, 6:46, 7:28-29 ㄴ.요2:25, 5:34 ㄷ.창7:15

첫째 날은 천자께서 천부 안에 계신 날이고 일곱째 날은 반대로 천부께서 천자 안에 계신 날이어서 그 처음과 끝이 ㄱ 하느님이십니다. 그 처음과 끝 안에 천지라고 하는 공간도 열리어 있고 일월이라고 하는 시간도 벌어져 있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품에 계신 ㄴ 아드님을 보신 첫째 날이 시작인 일장의 말씀과 하느님께서 아드님 안에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이 시작인 이장의 말씀이 서로 보고 증명하시는 하느님의 양쪽 관점에 따라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상대하여 보시고 증언하실 수 있는 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보다 더 나중이신 인자(人子)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자께서만이 하늘에서 오신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늘보다 먼저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ㄹ 일곱째 날의 빛은 사람보다도 나중인 생명이신데 ㄹ 그 처음과 나중이 서로 다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생명이시어서 천자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ㄹ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ㄹ 말씀하셨듯이 처음 첫째 날도, 마지막 일곱째 날도 천부와 천자께서 계셔서 그 양위의 관계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같은 빛이라도 햇빛과 달빛이 다르듯, 천부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다른 점은 그 아드님보다 크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하느님의 열매가 만왕(萬王)이요 만주(萬主)이며 그 열매보다 크신 ㄹ 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ㄹ 어린양이시고, 그 어린양보다 크신 임이 천부이시어서 삼위입니다.

ㄱ.사44:6, 48:12 계22:13 ㄴ.요1:18 ㄷ.요3:31~32, 5:32, 6:46, 7:28~29 ㄹ.요3:31, 17:5 ㄴ.요2:24 계1:18 ㄷ.계1:17, 2:8, 21:6, 22:13 ㄹ.계1:8, 21:6 ㄴ.요10:29, 14:28 ㄷ.요13:16 ㄹ.계17:14

이 때문에 어린양의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와 똑같으실 수는 없고 ㄱ 그 어린양께서 점지하시어 거듭난 빛의 아들들의 지혜와 능력이 어린양의 지혜와 능력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서가 제 일장만 있고 뒤집힌 제 이장이 없으면 하느님도 사람처럼 미지의 미래가 있게 되나, 하느님은 천지가 있기 전도 하느님이시고 천지가 폐한 후도 하느님이시어서 ㄴ 하느님께서는 망각도 있지 아니하고 미지도 있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ㄷ 주이십니다.

매일 같이 빠지고 다시 나는 사람의 머리털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ㄹ 주이시어서 천부(天父)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한 호리의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이 만유의 유일하신 ㄹ 주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라도, 바닷속의 물고기라도 아버지의 허락 하심이 없어서는 그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잡힌 것이 아무개에게 팔리고 또 그것을 먹을 아무개가 이미 있어서 하느님의 허락만큼 잡힙니다.

천지와 그 천지를 마주 보고 입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하늘이 위 하늘이 되고 땅이 아래 땅이 될 수 있는 의미가 발생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비를 받아서 그 양자 사이에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는 ㄹ 만사(萬事)의 진행이 일어납니다.

일장은 첫째 날로부터 시작되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과 끝으로 사람이 지어진 말씀이면 이장은 뒤집혀서 일곱째 날이 처음이 되어서, 일장의 만물(萬物)이 생긴 것과는 달리 그 만물의 용무가 성사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시매 땅은 이를 받아 초목을 내는 환경이 있어서 사람은 경작하는 것이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 사람의

ㄱ.마24:36 막13:32 ㄴ.사41:4 ㄷ.사48:13 계1:8 ㄹ.마10:30 눅12:7 ㄴ.막12:29 요5:44, 17:3 ㄷ.마10:29 ㄹ.창2:5

사람의 삼재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일컫는 만상이 있습니다.

음양을 한 글자로 쓴다면 바뀐다는 뜻입니다. 첫째 날의 그 처음에서 끝으로 진행되어 만물이 지어지듯, 끝이 처음으로 뒤집혀서 삼라만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어서 바뀐 역(易)입니다.

주역(周易)의 서문에 선천하이개기물(先天下而開其物)하고 후천하이성 기무(後天下而成其務)라고 하여서 선천과 후천을 언급하였는데 선천 하에서는 그 물체가 열리는 것이고 후천 하는 그 용무(用務)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성서와 같습니다.

또 다른 고전인 대학(大學)의 글도 같습니다. 물유본말(物有本末)하고 사유종시(事有終始)하니 지소선후(知所先後)면 즉근도의(則近道矣)니라 고 하였습니 다.

물체는 처음에서 끝으로 진행하여 있는 것이고 일(用事)은 끝에서 시작으로 반본(返本)하여 있는 것이니 그 처음과 나중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도(道)에 가까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일 음과 일 양을 도라고 하였습니 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유일하신 천부와 독생자의 그 정양과 정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ㄱ.

이태백(李太白)의 도이원서(桃李園序)에서 부천지자(夫天地者)는 만물 지역려(萬物之逆旅)요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이라 이 부생약몽(而浮生若夢)이니 위환기하(爲歡幾何)오 고인병축야유(古人秉燭夜遊)함이 양유이야(良有以也)라고 읊었습니다.

부천지는 만물을 마주하여 영접하고 그 부(夫)의 상대인 광음(光陰)은 수많은 세대의 지나치는 객(천지 안에 잠시 유숙하였다가 가버리는 손님)이라 이런즉 삶이 꿈과 같이 덧없으니 즐거울 것이 무엇이랴 옛사람이 밤에 촛불을 잡고 놀았던 놀이가 참으로 까닭이 있었구나 라는 글입니다.

ㄱ. 요17:3

아름다운 천지를 보면 태백은 이처럼 슬퍼하였습니다. 촛불을 잡고 있다가 그 초가 다하면 파장하는 놀이 같이 인생이 잠시 동안 반짝거린 촛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 천지와 그 천지를 대하는 짧은 인생의 삶이 서로 상대적이어서 천지는 아득한 과거에 열려서 오늘에 이른 것이나 그 무궁한 장관을 마주 보고 느낄 수 있는 삶은 반대로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한순간의 생명임을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부생약몽(浮生若夢)과 같은 인생에게 ㄱ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ㄴ 생명을 언약하신 글입니다.

상제께서 언약하신 생명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생명의 모형을 ㄷ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변화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 제아무리 인간의 야망을 이루려고 온 인류의 힘을 합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운명은 이미 짜여 있는 하느님의 도수가 있어서 그에 의하여 그대로 종말을 ㄹ 맞이하고 그 종말이 있어서 그다음 세대의 ㄴ 후천(後天)이 열립니다.

가라사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ㅂ.

천지가 폐하여진다는 의미가 아니오. 묵은 하늘이 물러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ㅅ 신천지(新天地)가 ㄹ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ㅅ 새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이어서 이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신 성서는 실상 인생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글입니다.

성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ㅈ. 장래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ㄱ. 시103:15 ㄴ. 단12:3 ㄷ. 창1:26 ㄹ. 습1:14~18 단12:4 마24:21~22 계8:7~13 ㅁ. 마12:45 눅16:8 ㅂ. 눅5:38 ㅅ. 마26:29 계21:5 ㅆ. 사35:5~10, 43:19 베후3:13 계21:1 ㅈ. 마19:28 ㅊ. 욥2:28 마11:13 행2:18 계1:3, 22:7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과거를 증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마땅히 될 일을 가르치신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일곱째 날이 으뜸으로 있는 창세기 이장의 말씀은 인생을 증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이 거듭 태어나는 새 차원의 생명을 증언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생명이 사는 하느님의 낙원을 창조하셨다고 아니하시고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글판은 창설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직역을 하면 심으셨다는 어휘입니다.)

나무를 심듯 심으셨기 때가 차야 열매가 열리는 세상입니다.

성서는 얼굴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의 삶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을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사람의 생명과는 다른 고차원의 생명이 지상에 출현하는 것으로 벌어질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 그의 주와 함께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여섯째 날에 지어진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와 같은 영생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산 자의 하느님이시오,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 본래가 산 자가 아니오. 산 자의 모형일 뿐입니다.

산 자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을 받고 거듭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모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입은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왕 노릇 하는 이 세대와 달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출현하여서 그의 주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 노릇 할 차세대의 생명이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ㄱ. 계4:1   ㄴ. 창2:8   ㄷ. 단7:22 요2:4 계6:10~11   ㄹ. 창3:17 마11:28   ㅁ. 요6:39   ㅂ. 계14:1, 16:12   ㅅ. 계15:2   ㅇ. 마10:25 요일3:2   ㅊ. 마12:39 눅16:8   ㅊ. 창3:20 마 22:32 계1:18   ㅋ. 마8:22   ㅋ. 창1:26   ㅌ. 마12:39, 45 막8:38   ㅍ. 계5:10   ㅎ. 눅16:8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에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누천년을 내려오며 인간이 왕 노릇 하는 인간의 나라가 멸망하고 뒤를 이어 하느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은 인생이건만 그리스도만을 유일하신 지도자로 받드는 것이 죄가 되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으나 주께서 언약하신 날이 이르면 그들의 주와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 태어나 만국을 통치하는 세상으로 개벽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언약입니다. 마지막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의 처음 열매가 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메시아와 똑같이 사망의 어둠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환골탈태하여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늘보다 먼저 계시는 생명의 빛이 물과 하느님의 신으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시오, 그와 같이 물과 하느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는 아들들이어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늘이 열린 것도 물과 하느님의 신으로 탄생하신 빛께서 아버지의 명을 좇아 물을 통과하셨기에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 궁창이 지어진 것이어서 이 과정을 일컬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섯째 날의 어둠을 통과하셨기 다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없으신 일곱째 날이 되시었고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서 생명의 진액을 받는 자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물까지도 학수고대하는 그 아들들입니다.

비록 사람의 세대에서는 이를 의례로 지키라고 명하셨으나 예수께서 축사하셨던 그 음료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ㄱ.마10:7 ㄴ.단2:44 계5:10 ㄷ.마23:10 ㄹ.눅22:30 계2:26 ㅁ.요6:40, 54 ㅂ.요3:3~8 ㅅ.계14:4 ㅇ.계20:6 ㅈ.요1:4, 8:12 ㅊ.창1:2 ㅋ.눅16:8 요12:36 ㅌ.창1:7 ㅍ.창1:8 ㅎ.마12:8 ㅊ.요15:4 ㅊ.롬8:19 ㅋ.마26:28 막14:24 히:20

주께서 그 언약의 피를 주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어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를 상제와 제자들이 함께 새것으로 마실 수 있는 천국입니다.

영혼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혼(혼령)이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의 주와 더불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나라인데 만물이 새로워져서 새것일 뿐입니다. 영이 아니라 물질의 그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폐하시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救世主)이십니다.

한 마디로 죄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로 개벽 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뜻이고 인생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시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하느님의 천지창조는 실패라는 말이 됩니다.

천지를 여셨다가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생을 멸종시키시고 천지를 폐하시고 마신다면 하느님의 천지창조는 하느님의 실패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의 야욕에 도리어 인생들이 짓밟혀 신음하며 천지까지 오염되어 만물이 탄식하는 이 현실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당신의 목적을 결국은 성사시키시어서 당신의 유종의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로 하여금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유업으로 상속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ㄱ.마26:29 막14:25 눅22:18 ㄴ.롬11:36 고전3:21 계21:5 ㄷ.요3:16 ㄹ.사65:17, 66:22 베후3:13 계21:1, 5 ㅁ.마6:10 ㅂ.창3:17 ㅅ.단2:44, 7:13~14, 22 ㅇ.롬 8:22 ㅈ.마7:19 요4:36, 12:24 계14:4 ㅊ.사34:17 마5:5, 25:34 갈3:29 계21:7

사람들 역시 몸이 새로워집니다. 말세에 예언하는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환난에서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남는 구원을 받아 새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입니다.

만왕이 다스리는 만국이 다시 소성합니다.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이 약초를 얻어서 성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이 길어져서 그 세상에서 백세는 아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함께 살던 세대로 회복되어 사람마다 장수하고 사람마다 잘나서 먹고 사는 것에 왕들과 차이가 없이 유복합니다.

저주받은 땅이 더는 아닙니다. 황무지나 사막이라도 물이 흐르고 강이 있는 옥토로 변하여 사람들은 심는 대로 그 소산을 거두며 그 거둔 것을 탈취하고 착취하는 자가 없어서 아무런 쫓김이 없이 모두 유유하고 자적하게 살아가는 신천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짐승들도 새로워집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이면 그대로 재림이지, 공중 재림은 또 무엇이오. 기독교인들이 휴거(擧)라는 말을 지어서 예수께서 재림 전에 기독교인들을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공중 재림을 하신다고 말하나 휴거니, 공중 재림이니 하는 어휘는 성서에 없는 어휘입니다.

ㄱ.사35:5~10 ㄴ.마24:22 막13:20 계7:14 ㄷ.계18:4, 21:3 ㄹ.계22:2 ㅁ.사35:5 ㅂ.사65:20~22 ㄷ.창6:1~2 ㄹ.사43:19~20 ㅊ.사65:21~23 ㅋ.사11:6~9

주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ㄱ 이 땅에서 천하 만국을 친히 다스리시려고 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어서 그의 백성이 임금을 영접하는 ㄷ 것입니다.

그때에 데려감을 ㄹ 받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오. 말일에 천국을 증언하는 일군들이 처형되어서 죽는 자들도 있고 ㅁ 살아남는 증인들도 있어서 ㅂ 그 남은 자들이 바람과 같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몸으로 ㅅ 홀연히 변화됨을 ㅇ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어린양께서 모으시어 한 무리가 되기 때문이오. 데려감을 받는 자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군과 ㅊ 연계된 말씀입니다.

말일에는 그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서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 칠혹같이 어두운 말일에 등불을 밝히지 못하여서 ㅋ 내버림을 받는 자가 있다고 ㅋ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일의 양식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교훈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가 일찍이 겪어 본 일이 없었고 또 그 후로도 있지 아니할 천재지변의 대환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 환난에서 육신이 살아남는 구원을 ㅌ 전도하는 것이어서 기왕의 전도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ㅍ 하거니와 말일에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기왕에 전하였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말일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비록 먹고 나서 꺾박과 시련의 고초를 겪을지언정 먹을 때는 꿀 같이 단 복음입니다 ㅎ.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을 ㅎ 받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육체의 치유를 일컬어 고의로 속죄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ㅑ. 영혼에 한정된 어휘가 구원이 아닙니다.

ㄱ.마16:28 ㄴ.마19:28 계11:17, 19:15, 21:3 ㄷ.마23:39 ㄹ.마24:40~41 ㅁ.계11:7 ㅂ.계 11:13, 12:17 ㄷ.요3:8 ㄹ.고전15:23, 38~44, 51 ㅊ.마24:45 눅12:42 ㅋ.눅 12:35~40 ㅋ.마25:1~13 ㅌ.마24:21~22 ㅍ.마4:23 계1:3, 10:7 ㅎ.계10:9~10 ㅎ.마24:22 ㅑ.마9:2, 21~22 막10:52 눅5:20~24, 8:48, 50

상제께서 증언하신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옵는 ㄱ 나라입니다.

때가 오듯 그렇게 다가오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새로이 퍼질 새 씨가 되는 ㄷ 복과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과는 상관없이 육신은 죽고 영혼이 생명책의 ㄹ 명부대로 생명의 부활을 ㄹ 입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영(신)이 되는 ㅂ 복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서 천 년 동안 이 땅에 새로 퍼지는 백성의 수는 지금 있는 이 세대 인구수보다도 많아집니다.

영혼이 부활하여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도 부활은 부활이나 천 년을 땅에서 왕 노릇 할 첫째 부활은 아니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ㄹ 따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밝혀야 할 증언이 때를 따라 ㄴ 다르지 않고서야, 상제께서 말세를 계시 하여 주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종에게 계시를 통하여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하여야 하리라」 라고 ㄷ 명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과거를 증언하는 것도 생명의 양식이거니와 말일의 양식은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후에 마땅히 될 ㄷ 일을 계시하신 작은 책의 비밀을 전하여서 다시 오시는 원군과 그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어서 다시 하는 예언입니다 ㄷ.

그 작은 책은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ㄷ 기록한 책입니다.

상제께서 구별하여 가까이 두셨던 제자가 셋이었는데 ㄹ 시몬 베드로와 상제로부터 예언의 계시를 받은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ㄱ. 마4:17, 6:10, 10:7 계3:12 ㄴ. 계18:4, 21:3 ㄷ. 창28:14 사8:8 시37:9, 22, 29, 34 사34:17, 57:13, 60:21 마5:5 계20:5 ㄹ. 계20:12 ㄹ. 요5:29 ㅂ. 마22:30 막12:25 눅20:36 ㅅ. 사54:1 ㅇ. 계20:6 ㅈ. 마24:45 눅12:42 ㅊ. 계10:11 ㅋ. 계4:1 ㄷ. 계 1:1, 3, 10:11, 22:7 ㅍ. 계1:1, 22:19 ㅎ. 마17:1 막5:37

그 세 제자는 예수께서 이름을 따로 주신 제자들입니다.

머물러 있다가 상제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 계시의 작은 책을 받아 먹고 ㄱ 온 세상에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ㄴ 다시 예언하는 증인들의 ㄷ 표상으로 요한의 두 형제를 세우신 것이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고 ㄹ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ㄹ 주신 시몬에게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요한)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라고 ㅂ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ㅅ 하시어서 사도(使徒)로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에 대하여 물은 것이고 그 물음에 예수께서 이같이 황당한 답변을 하신 것이어서 제자들까지도 요한은 주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ㄹ.

상제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때를 따라 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일군들의 사명이 있을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군이 있으면 추수하는 일군도 있듯 ㄷ 메시아께서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 일군들을 때를 따라 먼저 된 일군들과 나중 된 일군으로 ㄷ 구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를 받고 이방인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도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ㄷ. 그는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ㄷ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그 양들의 목자를 따라 ㄹ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서 순교한 종입니다.

부활하신 목자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ㄱ 세 번을 물으셨는데, 목숨이 두려워 세 번 주를 부인하였던 베드로이지만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목자께서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자취를 따라 그도 그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실행하여서 ㄴ 그 주의 참된 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ㄴ.

ㄱ. 계10:9 ㄴ. 계7:2, 10:3~4 ㄷ. 계11:3 ㄹ. 막3:17 ㅁ. 마16:18 ㅂ. 요21:22 ㅅ. 요21:15~17 ㅇ. 요21:23 ㅈ. 마24:45 ㅊ. 마9:37~38 ㅊ4:35~38 ㅋ. 마19:30 막10:31 ㅌ. 행10:1~48 ㅍ. 마16:6 ㅎ. 요21:22 ㅊ. 요21:15~17 ㅊ. 요15:13 ㅊ. 눅6:46~49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주와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순교하는 믿음을 가진 그 희생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ㄱ.

양의 주인이 목자입니다 ㄴ. 목자는 그리스도 하나 밖에는 있을 수 없어서 ㄷ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 목자의 종이라는 ㄹ 의미의 사도(使徒)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면 환난이 올 때에는 파멸되고 맙니다 ㅁ.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위한 샅(임금)을 받고 사역하는 일꾼이면 핍박의 환난이 닥칠 때 ㅂ, 제 목숨부터 구하려고 양을 버리고 피난하는 ㅅ 마당이 됩니다.

어두운 때 불을 밝히는 ㅇ 교회가 아니라, 핍박이 없는 때나 존립하는 종교단체 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요한이 받은 예언의 작은 책은 선지자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글과 함께 인봉(印封)되어서 ㅈ 기독교에서 복음이 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세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 계시를 해석한다는 종교인들이 있었으나 그 해석이 교파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교파의 성직자들까지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마당에 어찌 복음이 될 수 있으리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ㅊ 말씀하셨건만 지금의 기독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봉이 열렸습니다. 상제께서 오실 때가 코앞에 당도하였기 때문입니다 ㅋ.

ㄱ. 마16:18 ㄴ. 요10:14 ㄷ. 마23:10 ㄹ. 마24:45 ㅁ. 눅6:49 ㅂ. 요16:33 행14:22 ㅅ. 요10:12 ㅇ. 마25:1~13 계1:20 ㅈ. 단12:4 계22:10 ㅊ. 계1:3 ㅋ. 계22:10

성서의 비밀이 ㄱ 이제까지 거울을 보듯 희미하였으나 이제는 실물을 보듯 명확하게 열린 것이고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 그렇게 온전하게 알도록 열어 주셨습니다 ㄴ.

칠혹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ㄷ 새 세대의 문명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이제까지 부분적이었고 희미하였던 복음이 ㄹ 온전하고 밝히 공개되어 해 돋는 곳에서부터 ㅁ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도가 형제이듯 상제께서 오시기 직전의 미명에 그 인봉 된 비밀을 열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말일의 일꾼들을 두 증인으로 ㅂ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한다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ㅅ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전하는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증거의 내용 때문에 모든 이로부터 미움을 사서 고소를 당하고 처형될 것을 단언하셨는데, 핍박 중에서도 말일에 이르러 성도들이 받을 대대적인 환난을 ㅇ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일의 핍박을 받는 당신의 일군들은 그때 있는 종교단체의 성직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샅 군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진 전토를 버려야 하며 부모나 처자까지 버려가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 초기 사도들의 교회처럼 다시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듯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말일에 늦은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ㄱ. 계10:7 ㄴ. 고전13:12 ㄷ. 요9:4 마25:6 ㄹ. 계14:6 ㅁ. 계7:2 ㅂ. 계11:3 ㅅ. 마10:16~23, 24:9 눅21:17 ㅇ. 마24:9  
요16:1~2, 33 ㅈ. 마19:29 막10:29~30 ㅊ. 마24:32 ㅋ. 골2:28~32

집 짓는 이가 다림 줄을 치듯이 그 일군들이 일어남으로써 핍박을 가하는 자들과 핍박을 받는 자들로 신앙이 양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 그대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증언하는 자라면,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보다 같은 하느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세력과 짝하는 음녀(淫女) 쪽에 붙어 만국을 취하게 하는 그 음녀의 술에 취하여서, 같은 예수의 일을 하는 동무(同務)를 때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보다 먼저 하느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과거 선지자들도 같은 계통이어서 핍박을 받은 것이고 당신의 종들 또한 그같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세(在世)하셨을 때, 로마인들은 각기 다른 이름들을 가진 자기네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의 신전을 웅장하게 짓고 그곳에서 그 신을 찬양하는 예식으로써 신을 숭배하였는데, 그 풍속에 몰 들어 유대의 종교인들은 하느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자기네 민족의 신으로 여겼고 그 이방인과 같이 하느님을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섬기는 종교의 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느님을 천지의 유일하신 주(임금)로 모셔서 그의 계명을 자신의 법으로 지키는 행실로써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을 위주로 하여 살다가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모여서 사람이 만든 행사를 갖는 유전(遺傳)으로써 섬겼습니다.

인생에게 친히 계명을 주신 신명이 하느님 외에도 있으리오.

인생이 그의 말씀에서 그의 뜻을 배우고 그의 계명대로 함으로써 인생의 생활 속에서 동행하여야 할, 자신의 주이시건만 그 주를 인생이

ㄱ. 슄4:10 계11:1~2 ㄴ. 요16:2 ㄷ. 계14:8, 17:2 ㄹ. 마24:49 ㅁ. 마23:31 ㅂ. 마23:34, 24:9 ㅅ. 눅11:28 요7:19 요일 5:3 ㅇ. 막7:8 사1:10~17

도무지가 가까이할 수 없는 신으로 격리시키고 자격증을 가진 종교인이 거행하는 예식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는 그 종교인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며 신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밀어낸 것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자신이 행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입술로만 하느님을 찬송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사람 눈에 보기 좋게 꾸며진 신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 계명을 저버리면 화를 내리신다고 거듭거듭 경계하신 하느님이 그들에 의하여 그들만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그들 편의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지의 주를 인간의 가상적인 신으로 바꾸어서 그들은 실상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하느님의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였어도 이미 우상을 섬기던 애굽 족속에게서 오염되어 금불이를 헌납하여 자기네들의 신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사십 일이나 떡은커녕 물까지 마시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짐짓 하느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가 하느님을 뵈는다고 혈혈단신 빈손으로 물도 없는 광야의 산으로 들어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도 소식이 없으니 살았을 리가 만무하다고 여긴 백성은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전과 같이 자기네를 인도할 신을 찾아야 하겠는데 모세 외에는 그 신과 교통하는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인도했던 모세의 형은 있었기 그와 함께 제 댁에는 하느님을 만들었습니다.

ㄱ.말3:8 요10:1, 8    ㄴ.눅11:42    ㄷ.마15:8    ㄹ.출32:1~6    ㅁ.출34:28    ㅂ.출4:14

애굽인이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보았던 히브리 백성도 패물들을 모아 히브리인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을 일컬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신이라고 불려서 그들 댁에는 그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인 줄 알았고 그 하느님을 만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것을 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느님을 추론하여 만든 형상입니다. 하느님께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그 성호의 발음이 소의 울음소리와 같았기 하느님을 소의 신으로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옛 그리스나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태양의 신이니, 바람의 신이니, 생산의 신이니, 복수의 여신이니 하면서 신 앞에 사물의 명칭을 붙여서 갖가지로 분석된 신들을 지어낸 것과 같습니다. 천자께서 당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일컬으셨고 빛의 아들들의 세대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하여서 하느님께서 태양의 신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전도되었습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천지와 일월성신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하여 정의한 신이 하느님이 아니고 사람이 고안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같습니다. 제 댁에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느님을 주로 여겨서 그 주의 말씀을 좇지 않았습니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보다는 로마의 풍속에 물이 들어서 하느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파들이 생겼습니다.

ㄱ.출32:1~6    ㄴ.출32:4    ㄷ.요8:12, 11:9    ㄹ.눅16:8    ㅁ.요1:2    ㅂ.마16:11~12

성서의 전문 지식을 갖고 7 선생 노릇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참뜻에는 근접조차 못하는 소경이 되어 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였을 뿐입니다.

천자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종교인들이 외식 하는 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여 가르쳤기 그 왕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칭하였던 하느님과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지칭하였던 하느님이 서로 다른 임이 아니건만, 요한은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여 ㄷ 축복을 팔아먹는 그들과 반대 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실 유일한 임금으로 ㄹ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을 체포하여 그들 자신의 유일한 임금이라는 ㄹ 가이사의 군대에게 넘겨서 그 군대가 자기네 국법으로 자기네 국가의 형틀에 못을 박게 하였습니다.

정작 받들어야 할 주이신 하느님은 허울일 뿐이요, 실제의 행동은 그 반대편의 종이 되어 그 임금을 섬겼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의 뜻은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主)라는 ㅂ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유일하신 주시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는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인은 그들의 황제를 태양 신의 아들로 신격화 하여서 그들의 신과 같이 그 황제의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성서의 하느님을 좇는 길과 이방의 풍속을 좇는 길은 상반된 길입니다 ㅅ.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도 필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에게서 오염되어 하느님이 아닌 주를 섬겨서 ㅎ 멸망할 것을 선언한 모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경종을 울리건만 지금의 이 세상은 그 당시의 유대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ㄱ.마11:25 ㄴ.마15:14, 23:16~26 ㄷ.마3:7 ㄹ.마5:35, 23:10 요1:49, 18:37 ㄴ.요19:15 ㅂ.막12:29 ㅅ.민25:1~5 신4:25~28 계2:14~16, 13:11~15 ㅎ.신 29:14~28 한글판 [신들을]라고 번역한 그 신들은 창1:1의 하느님과 같은 단어임.

하느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궤(櫃)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ㄱ.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필히 누려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하여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성서의 하느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끝날에야 하느님께로 돌아온다고 ㄴ 예언한 것이고 성서가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느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 성서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마는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극동에서는 언약의 약(約) 자를 써서 성서를 신, 구약이라고 하나 영문으로는 신, 구 증거라고 합니다.

성서대로만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국가는 참혹히 멸망하고 민족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모진 멸시와 잔혹을 당하여 온 지가 이천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 이천 년 동안 타민족에 흡수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대를 망라한 모든 민족에게 성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도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일어날 사건이 성서에 남아 있어서, 금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옛 땅의 얼마를 되찾았습니다.

성서의 예언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종할 마지막 시기로<sup>ㄷ</sup> 세상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은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sup>ㄹ</sup> 예언하신 그때입니다.

ㄱ.신31:24~26 ㄴ.신4:25~31, 31:27~29 ㄷ.신4:30 ㄹ.마23:39 ㄷ.눅13:35

이제는 그 민족이 다시는 민족의 신이 아니라, 성서 속에 기록된 그 하느님, 곧 천부와 천자이신 천주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성서의 하느님이라는 명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명사입니다.

주는 오직 그 복수이신 하느님만이 주이십니다<sup>ㄱ</sup>.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의 어린양이 바로 그 복수 중 한 분이신<sup>ㄴ</sup>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세에 그의 종들이 핍박을 받아가며 증언하는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sup>ㄷ</sup>. 영적 임금이 아니라 육신이 볼 수 있는 큰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어<sup>ㄹ</sup> 만국을 다스리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보내시는<sup>ㄹ</sup> 성령과 그 어린양께서 가르치신 진리로<sup>ㅂ</sup> 하느님을 대하지 아니하는 예배는<sup>ㅅ</sup>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sup>ㅇ</sup>.

천명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하는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난 대로 행동하는 짐승과 달라서 마음에 씨를 붙여 마음씨라고 하고 행위를 말할 때는 행동할 행(行)에 열매 실(實)을 붙여 행실이라고 합니다.

행실은 마음의 자취입니다.

성서에 하느님의 지당하신 교훈이 있어서 그 성구를 구구절절 외워도 그 하느님의 선하신 뜻과 내 마음이 다른 한, 나는 내 욕심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인생 속에 거하실<sup>ㅅ</sup> 진리의 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구하면 하느님께서 주신다고<sup>ㄷ</sup> 가르치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구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sup>ㅋ</sup>.

그 신을 인생에게 보내시려고 천자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보내심을 입으셔서 사람의 속에 거하시는 하느님의 일곱 영은 인생이 하느님의 어린양에 접 붙은 가지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sup>ㅌ</sup> 포도나무의 진액입니다.

ㄱ.신4:39(신이 아니라 다른 주가 없다는 문장임) ㄴ.창3:22 ㄷ.마23:10 ㄹ.마5:35 ㅁ.요14:26 ㅂ.요8:45 ㅅ.요4:23~24 ㅇ.사1:11~17, 2:5~11, 66:1~4 ㄱ.겔14:1~11 ㅂ.베전4:3 ㄷ.계2:20 ㅅ.마10:20 ㅌ.요14:17 ㅍ.마7:7 ㅋ.눅11:13 ㄴ.요7:39 ㅍ.요15:1~12

그 어린양께서 가라사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sup>ㄱ</sup> 하셨습니다.

행실이 없으면 외식입니다. 주어, 주어 하면서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있어서<sup>ㄴ</sup> 이를 지키는 것만이 천국에 들 수 있는 다만의<sup>ㄷ</sup> 조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들은 그 말씀을 행하신 그 길(道)이 곧 하늘보다 먼저 계셔서,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말씀이십니다<sup>ㄹ</sup>.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sup>ㅁ</sup>.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인생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편이 되는 것이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종용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믿겠다고 걱정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는 자가 되고 좋아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스스로 못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부유한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좇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약대 털로 몸을 둘러서 누추하기가 짝이 없어도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을 좇는 자들이 있었고 그

ㄱ.마7:18~21 ㄴ.마22:35~40 ㄷ.마7:21, 19:17 ㄹ.요1:1~3 ㅁ.요17:17 ㅂ.히11:3 베후3:5 ㅅ.출33:19 마19:17  
ㅇ.요1:18, 14:9 ㅈ.마10:41 ㅊ.마23:4 눅 11:46 ㅋ.막1:6 ㅌ.막2:18

뒤를 이어 하느님께서 보내신 어린양의 말씀 한마디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를 좇았던 7 제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었던 유대인이건만 많은 사람이 가는 보편적인 문과 소수가 찾는 좁은 문의 길로 나뉘어서 서로 노선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신자 수가 많아서 상대 편을 꺾박하는 큰 성(城), 음녀와 수가 적어서 꺾박 받는 여자 편으로 노선이 양분하는 때가 말세입니다.

음녀는 이미 만민 위에 앉아서 땅의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에 반(反)하여 침례 요한과 같이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며 오시는 임금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시작되는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하시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때가 말세입니다.

진정 말세에 재앙을 받지 않을 하느님의 백성이면 나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음녀의 성입니다. 서방질하는 여자가 음녀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설교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력과 짝을 이루고 그 권력이 부여하여 준 특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교파의 문을 만들어 세운 지도 계급의 성입니다.

허울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 기도를 하여도 상제의 교훈을 좇아 홀로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에게 고해하거나 그 지도자가 발성하는 기도 소리와 축사를 들려주는 장소를 그들은 거룩한 집이라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ㄱ.마4:22, 9:9 눅5:11 ㄴ.마7:13~14 ㄷ.눅18:8 ㄹ.마24:49 요15:20 ㅁ.마5:11 ㅂ.계17:15 ㅅ.마3:7 ㅇ.마24:21  
ㅈ.계18:4 ㅊ.계14:8, 17:5, 18:2 ㅋ.사56:7, 막11:17 ㅌ.마6:6, 18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한다고 표명하면서 실상은 하느님과 인생 사이를 가로막고 격리시키는 자들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신은 인생에게 계명을 주시어서 그 행실에 따라 복도 내리시고 재앙도 내리시는 성서 속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예배와 세례, 혼례, 장례와 같은 갖가지 종교적 의례를 거행하면서 축복만을 팔았기 그들의 신은 그들의 교인에게 복을 주는 신이고 그 반대로 마귀는 재앙을 주는 신으로 왜곡되어서,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없는 예배 의식과 의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집행하는 자격을 독점하여서, 교인들이 헌금할 돈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때에 그들은 여유를 누리며 평생 우대를 받는 직종을 만들었습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사례를 받는 것이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몰품을 팔 듯 파는 업종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젓이 여기면서도 그들이 주례하며 축복하는 입술을 통하여 복을 내리는 자로 만들어진 하느님이 그들의 신이어서 이를 본받아 모든 이가 입술로만 하느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대관절 누구의 인도로 세상이 온통 거짓과 위선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으며 누구에게 배워서 의(義)와 인(仁)과 신(信)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뺨개치고 육신의 욕구와 재물만을 좇아서 활동하는 종류의 천하로 세상이 급변한 것일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거듭거듭 저주로 입을 여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통하여 만인이 돌을 던지던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만인이 저주하는 살인강도까지도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께서 만인이 존경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이토록 저주하셨습니다.

ㄱ. 출20:5~6 신30:15~18 수24:20 마13:42 계2:23, 22:18    ㄴ. 렘8:10~11, 14:13, 23:16~17 겔13:10 미3:5    ㄷ. 마7:21, 25:30    ㄹ. 마23:23    ㅁ. 요8:44 베태4:2    ㅂ. 마6:24    ㅅ. 마11:21, 23:13~29 눅6:24~25, 11:42~52    ㅇ. 요8:11    ㅈ. 눅23:43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자가 그리스도의 저주는 옛 유대교의 종교인들에게 하신 저주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자기네 교인들이 받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기는커녕 실상은 능멸하는 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상속 받으실 그리스도의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작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일개 약소국의 특정 종교인들과 싸우시기 위하여 그 많은 저주를 남기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설정하여 놓으신 화와 복은 그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상제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어떤 자가 화가 있는 것이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교인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축사한다고 복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을 장악하는 제국이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빛 짐승이요.

한참 젊은 때부터 예수를 가까이 따랐던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후 밧모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던 당시의 로마는 그 짐승의 여섯째의 머리이고 말세는 일곱째 머리입니다.

그 짐승과 한통속이 되어 만민을 그 짐승에게로 인도함으로써 의와 인과 신을 명하신 하느님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느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종교인이 음녀입니다.

입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고 하면서 그 천부와 천부께서 보내신 주는 단지 명분상의 주이실 뿐이요, 그들의 실질적 주는 그들에게 지도 계급의 신분을 공권으로 보장하여 주는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입니다.

ㄱ. 마21:38 막12:7    ㄴ. 요8:40    ㄷ. 마5:3~12    ㄹ. 계13:2~4    ㅁ. 계13:1    ㅂ. 계17:3    ㅅ. 요13:23    ㅇ. 계1:9    ㅈ. 계17:10    ㅊ. 계13:14, 17:2, 3, 18    ㅋ. 계13:12, 15    ㅌ. 마6:13    ㅍ. 요19:15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주께서 보내신 그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인가하여준 그 권세의 종입니다.

같은 악행이라도 하느님을 안다는 자가 행하는 것과 하느님을 모르는 자가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인은 선량하고 유대인은 불량한 백성이 아니련만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전연 아는 것이 없는 로마군의 침공을 허락하시어서 유대인이 비참한 화를 입게 된 이유가 이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며 창으로 찔렀어도 ㄹ 배반 죄는 ㅂ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에게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듯 하느님의 법이 없는 자들의 행위가 하느님께는 짐승의 ㅅ 행위밖에는 아니 되나,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행실은 무도함을 넘어 가증한 ㅅ 행위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받아 전하는 ㅈ 침례 요한과 메시아를 유대의 종교인들이 배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자신을 광고하는 처지였기에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쪽과 불통이 되어 있는 그들의 허구가 비교되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ㅈ.  
하느님을 몰라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외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심지어 권능을 행하며 여러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명하신 계명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ㅋ.  
예수께서 이를 얼마나 경계하셨으면 이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라고 ㅌ 하시고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울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고 ㅍ 하셨을까.

ㄱ.마10:1 행1:8, 4:33 ㄴ.마23:34 ㄷ.요13:16 ㄹ.겔7:21, 24 ㅁ.요19:34 ㅂ.레26:15 민14:43 사57:8 눅8:13 히12:25 계3:8 ㅅ.마7:6, 15:27 ㅇ.마24:15 딤후1:16 계17:5 ㅈ.요5:19 ㅊ.요3:20 ㅋ.마7:13-23 ㅌ.마7:23 ㅍ.마24:51, 25:30

조선 말에 이를 간다는 말이 분을 식이지 못하는 감정의 표현인데 예수께서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뉘우칠 수 없어서 하느님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끓어 오르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주고 누가 종이오. 교인을 모아 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 무조건 그 예배를 뒤따라 받으시는 자가 하느님이신가.  
가인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오. 외식한 자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가인이 자신의 행실과 상관 없이 ㄱ 하느님을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틀렸습니다.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여, 하느님을 등지고서 무슨 예배요. 내가 앞서면 하느님은 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앞세워 따르는 선행만이 인간이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는 ㄴ 인간의 기본자세입니다.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위아래의 그 먼저와 나중을 알아야 인간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하여놓고 하느님께서 뒤따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얼굴에 붉은 핏발이 끓어올라 ㄷ 감히 하느님께 분노를 발한 자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거역하면 남는 것은 살생으로 살아가는 들짐승밖에는 아니 됩니다. 가인은 결국 들에서 아우를 쳐 죽이고 들에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양식으로 살지 않고 ㄹ 표를 받아 그 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ㅁ. 짐승의 표입니다.

해원(解冤)이 ㅂ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ㅅ 이 민족, 저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ㅇ 멸망하고 마는 것이 심판입니다.

온 인류를 강타할 전무후무한 대 참극은 외식하는 자들의 꾀박으로 목 베임을 당한 원혼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과

ㄱ.창4:7 ㄴ.창4:7, 14 ㄷ.창4:5-6 ㄹ.마4:4 ㅁ.창4:15 ㅂ.창4:10 계6:10, 19:2 ㅅ.계13:17, 14:11, 19:20 ㅇ.마24:9

같이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참형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그 원(冤)을 풀어주시는 것이 ㄱ 심판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느님과 사이를 가로 막고 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원통히 죽으면 그 원한이 반드시 갚아지고야 마는 것이 하늘의 법이거늘 ㄷ, 하물며 창세 이래 하느님을 향한 신심과 의로움 때문에 처형된 그 수많은 원을 맺히게 하고서도 무사할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그마치 이천 년 가까이 수난을 받았습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의 ㄹ 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으로 풀렸으면, 이천 년 전의 그 사가랴 이후로 하느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서 ㅁ 맺힌 원은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큼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수난을 당한 것은 ㅂ, 하느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자기네의 신이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ㅅ.

예언서를 보면 자기 민족에게 화를 예고하는 ㅇ 선지자들은 마치 매국노 같았고 ㅈ 복을 파는 거짓 선지자들은 애국자 같습니다.

거울을 보듯, 같은 일이 말세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를 로마법의 범정에 넘긴 주체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였듯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기 위하여 ㅊ 종교의 각 종파와 교파의 이름으로 문패를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축복을 파는 종교 지도자들의 범세계적인 협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세상은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재앙을 내리시는 ㅋ 천지의 주재자가 ㅌ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싸워야 할 인류의 주적으로 매도되기 때문입니다.

ㄱ.시94:1~4 사35:4 렘50:15 계6:9~11 ㄴ.마5:23~24 ㄷ.창9:5 ㄹ.마23:35 눅11:51 ㅁ.계6:9 ㅂ.렘26:8~11 ㅅ.사9:13~17 렘23:16~20 ㅇ.렘21:10 암9:10 마3:7 ㅈ.렘20:7~8, 38:1~6 ㅊ.마7:15 요10:10 ㅋ.사45:7 ㅌ.마11:25 계6:10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선지자 다니엘이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처참히 파괴되고 밧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요한이 받았던 계시와 ㄱ 똑같이 봉(封)함이 ㄴ 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인봉(印封)된 계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ㄷ 무엇이며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명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주신 비결(秘訣)입니다 ㄹ.

하느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그 주를 향한 충성과 정절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까지 세상 나라의 국법을 ㅁ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느님의 신능으로 세상이 뒤집혀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들은 죽고 사지로 들어갔던 성도들은 도리어 다스리는 자가 되었음을 ㅂ 모형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충신에 두 임금이, 열녀에 두 서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ㅅ 그들이 충성하여야 할 그들의 임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ㅇ.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통용하였던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 말로는 미시라고 발음하고 히브리 음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어휘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ㅈ 어휘입니다.

선지자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아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느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지도자임을 공표한<sup>ㄷ</sup> 데서 생겨난 말이어서 사람들에게서 권세를 위임 받아서<sup>ㄷ</sup> 된 지도자와는 반대로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왕을 지칭하는<sup>ㄷ</sup> 어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에게서 임마누엘이 탄생하시어서 하느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sup>ㄷ</sup> 선지자 요한이 하느님의 지시를 받아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하였습니다<sup>ㄷ</sup>.

ㄱ.계10:4 ㄴ.단12:9 ㄷ.단2:44, 7:18, 22, 27 마6:10, 10:7 ㄹ.마11:25, 13:11 계 10:7 ㅁ.단3:4~6 ㅂ.단1:8, 3:1~30 ㅅ.마10:22, 24:9 계11:10 ㅇ.마12:26 요 15:19 ㅈ.요1:41, 4:25 ㅊ.삼상2:10, 9:16, 16:1 왕하9:3 시2:1~12 단 9:24~25 ㅋ.계17:10~13 ㅌ.요18:37 ㅍ.사7:14, 9:6 마1:23 요1:18 ㅎ.요1:32~34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 상제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sup>ㄱ</sup> 천부께로부터 상속받으신 이 땅을 접수하시어서 친히 정사를 베푸시려고<sup>ㄴ</sup> 오시는 것이오.

태고부터 인류가 고대하여 오던 당래불(當來佛)이시요 조선의 백성 또한 고대하여온 정 도령이십니다. 참언 중에는 세간에 퍼지는 속설(속언, 속담)이나 동요도 참언같이 여기는 바<sup>ㄷ</sup>, 죄인들은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성군이 신병들과 함께 바다 위로 부상하시어 오신다는 속설과 같습니다.

속설로 나라 정(鄭)을 당나귀 정이라고 합니다. 유대 음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어 장가도 들지 아니하신 도령의 몸으로 예루살렘에<sup>ㄷ</sup>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sup>ㄷ</sup> 유대(이스라엘)의 임금이시어서<sup>ㄷ</sup> 정(鄭)을 파자(破字) 하면 같을 유(猷)에 고을 음(邑)이고 옥편을 보면 유(猷)자는 유대의 유(猶) 자와 같은 문자이듯 비결은 대부분 이같이 파자로 풀이합니다.

공화제로<sup>ㄷ</sup> 인류 역사상 마침내 전 세계의 통수권을 쥐<sup>ㄷ</sup> 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sup>ㄷ</sup>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sup>ㄷ</sup> 라고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양단으로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오<sup>ㄷ</sup>. 이쪽에서 보면 저쪽 지도자가 역모의<sup>ㄷ</sup> 괴수이고 저쪽에서 보면 예수께서 반역의<sup>ㄷ</sup> 우두머리입니다.

누가 괴수인지 지나보아야 판결이 나나, 하늘에서는 이미 정하여진<sup>ㄷ</sup> 것이어서 더 어찌 될 수가 없는 세상의 운명입니다.

이미 결정된 승패를 가지고 그 괴수는 전쟁을 일으키는<sup>ㄷ</sup> 것이오. 먼저 이겼다가<sup>ㄷ</sup> 영원히 패망하는 쪽이 괴수이고, 처음에는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다가<sup>ㄷ</sup> 천하를 영원히<sup>ㄷ</sup> 얻는 자가 진정한 모사이고<sup>ㄷ</sup> 영웅입니다<sup>ㄷ</sup>.

ㄱ.마24:27, 44 요14:3 행1:11 ㄴ.마 16:28 계11:17, 19:15, 21:3 ㄷ.삼상18:7 마21:15 요4:25 ㄹ.마5:35 ㅁ.마21:5 요 12:14 ㅂ.요1:49, 12:13 ㅅ.계17:12~13 ㅇ.요12:31, 14:30 ㅈ.살후2:3 ㅊ.요일 2:18 ㅋ.눅12:51 ㅌ.단8:25, 11:21 ㅍ.요19:12 ㅎ.요16:11 ㅈ.계11:7, 19:19 ㅈ.계11: 7 ㄴ.창32:25 사60:15 마27:46 계11:7 ㄴ.단7:14, 27 ㄴ.사9:6, 11:2 ㅍ.요3:14

한 고조는 말을 타고 싸우는 전장에서 상대를 쳐 굴복시키고서 마상득천하(馬上得天下)라고 하였거니와 나귀 새끼도<sup>ㄱ</sup> 말은 말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sup>ㄴ</sup> 백마를 타신 원수이시니 적을 무력으로 무찔러 죽이고 땅을 정복하는 득 천하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순종하셔서 하느님으로부터 상속 받으시는<sup>ㄷ</sup> 득 천하입니다.

무력으로 못 나라를 굴복시킨 바벨론(바빌로니아) 왕은 천하 만민이 경배하는 우상의 머리입니다<sup>ㄷ</sup>.

바벨론 왕이 꿈에서 본 우상을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을 그 우상의 머리로 해석하였는데 바벨론 왕은 모든 백성의 단합을 위하여 바로 그 우상을 실물로 만들어서 만민으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이를 어기는 자는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는 국법을 공포하였습니다<sup>ㄷ</sup>.

그리스도의 계시 또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권을 가진 왕과 그 왕의 나라는 같습니다. 말세에 지상의 모든 민족이 경배하는 우상이든 어떤 신의 형상이 아니라 인류가 인류를 위하여 이룩하는 ◦ 단합의 조직체를 상징하는 형상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우상을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계시하셨고, 또 외형은 하느님의 어린양과 같은 새끼 양의 두 뿔을 가졌으나 실체인즉 용처럼 말을 하여 만민을 미혹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서 이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스 음녀입니다.

말세에 증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곳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 라』 라고 쓰 하셔서, 인간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서로 때와 곳이 각기 달라도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ㄱ. 마21:5    ㄴ. 계19:11    ㄷ. 마21:38, 25:34    ㄹ. 단2:38    ㅁ. 단3:1~7    ㅂ. 계5:10    ㅅ. 계13:15    ㅇ. 창11:1~4    ㅈ. 계13:11~15  
ㅊ. 계11:8

속 내용은 하나입니다. 같은 한 계통이 그 타고난 일을 하는 것이어서 과거에 멸망하였듯이 결국은 진리대로 그렇게 멸망할 몸입니다 ㄱ.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꿈에 본 우상의 머리를 바벨론이라고 하여서 느브갓네살의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다리오의 메데(미디어)와 ㄴ 고레스의 바사(페르샤)와 ㄷ 서방 알렉산더의 헬라(마케도니아)까지 ㄹ 네 제국을 열거하였으나, 뒤이어 요한이 본 계시는 바벨론 전의 바로의 애굽까지 ㅁ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나라로 계시가 되었기 짐승의 일곱 머리 중 다섯은 망하였다고 한 것이고 ㅂ 저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가 여섯째이고 세상 끝에 있을 열 뿔은 일곱째 머리입니다.

그 열 뿔이 그들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어서 결국 세상 끝에는 천하 만국이 복종할 강대국들의 연합체와 그 대표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짐승이고 세계의 중앙에서 세워질 그 연합의 상징물이 ◦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경배하는 우상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앉아서 그 체제를 따를 것을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그 멸망의 가증한 물건에 스 경배치 않는 자들을 참조하여서 법정에서 세우는 것이오.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이들의 핍박에 목숨을 바쳐가며 저항하여서 자기네 임금께 정절을 지키는 스 성도들 또한 예나 말세나 같은 한 뿌리의 계통이고 그 뿌리는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의 독생자와 그 독생자를 맞아 ㅋ 한 몸을 이룰 해를 입은 여자가 ㅌ 있듯이, 저들의 아버지인 ㅍ 옛 뱀과 ㅎ 그 아버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ㅊ 열 뿔 가진 짐승의 임금인 ㅊ 멸망의 아들과 ㄱ 그 짐승을 타고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음녀가 ㅋ 저들의 나라입니다 ㄴ.

ㄱ. 사8:7~11    ㄴ. 렘51:11    단11:1    ㄷ. 단8:20    ㄹ. 단8:21    ㅁ. 계11:8    ㅂ. 계17:10    ㅅ. 겔38:11    ㅇ. 창11:1~9    계17:10  
ㅈ. 단9:27, 11:31, 12:11    마24:15    ㅊ. 계14:4    ㅋ. 마5:14~15, 25:1~13    ㅌ. 계12:1    ㅍ. 요8:44    ㅎ. 계12:9, 20:2    ㅊ. 계13:4, 7    ㅊ. 요14:30    ㅋ. 살후2:3    ㅋ. 계17:3~4    ㄴ. 마12:26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이라고 ㄱ 하셨습니다. 만민으로 하여금 우상에 경배하도록 한 바벨론 왕은 그가 우상의 머리이고 그 우상을 칠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인데도 ㄴ 언제나 입으로는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나라를 찬양하였습니다 ㄷ.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종들 이마에 쓰인 이름이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듯 ㄹ, 입으로는 하느님의 나라를 찬양하지만 음녀의 실질적인 주는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밝히시는 빛도 삼 층이고 들짐승이라고 말씀하신 ㅁ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인 ㅂ 붉은 옷을 입은 여자도 삼 층입니다.

해를 입고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의 대적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핍박을 받는 여자이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핍박하는 여자입니다.

여섯째 날의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빛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크기가 다른 층을 이룹시오. 그 빛이 출현함으로써 영원히 패망하고 말 나라 또한 여섯째 날에 지어져서 사람의 수도 되고 짐승의 수도 되는 그 여섯이 삼 층이어서 육백육십육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만이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 때문이오.

ㄱ. 계17:5    ㄴ. 단2:31~44    ㄷ. 단2:47, 3:28, 4:3    ㄹ. 계7:3, 14:1    ㅁ. 창3:1    ㅂ. 계13:11    ㅅ. 계12:1    ㅇ. 계13:16~18  
ㅈ. 마25:1~13    ㅊ. 마24:45

주인이 오는 때를 깨닫지 못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동료를 치며 만국을 음행으로 취하게 하는 음녀의 친구가 되어 ㄱ 다른 주인을 ㄴ 섬기다가 그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형제들을 외면하고 ㄷ 오직 재물에 매여서 자신의 영리만을 좇다가 공휴일을 틈타 사람의 관례로 예식에 참석하여 하느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하나 예수의 교훈과 상반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가르침을 이렇게도 철저하게 변질시켜 놓았을까.

인생에게 하느님을 섬기는 ㄹ 법을 가르쳐주시고 친히 보여주셨건만 ㅁ, 그를 따른다는 자들에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ㅂ 따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천자께서 금하신 것만 골라가며 행하여서, 천자께서 예언하신 대로 죄를 탕감받기 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ㅅ.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지어미는 지아비를 따르던 인류가 있어서 자녀는 부모를 모셨고 간음을 무거운 죄로 여겼던 법도마저 무너져 짐승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자의 예언대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변하여 ㅇ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희생시킬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정(사랑)은 식고 반드시 없어야 할 불법이 성한 것은 ㅈ 심판이 가까웠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무슨 연고로 처형되었으며 ㅊ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던가.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셨기 ㅋ 때문이오. 예수의 종들 또한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ㅌ 세상을 책망하여서 ㅍ 모든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ㅎ.

ㄱ. 마24:48~49    ㄴ. 마6:24    ㄷ. 요1서4:20    ㄹ. 마20:28    ㅁ. 막10:45    ㅂ. 요13:14    ㅅ. 마 10:38, 16:24    ㅈ. 막8:34    ㅊ. 마12:43~45  
ㅇ. 눅17:29    ㅊ. 벡후2:6    ㅈ. 마24:12    ㅊ. 마5:12, 21:35    ㅋ. 마23:38    ㄴ. 눅6:24, 11:42~52    ㅌ. 마10:20    ㅍ. 요16:8    ㅎ. 마10:22, 24:9

말세의 일군이 생명의 식량을 삼아 배에 넣어서 세상에 예언할 작은 책은 ㄱ 복과 함께 재앙의 화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어떻고 어떤 자가 복이 있으면 그 반대는 화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건만 그 큰 복을 받을 자는 오로지 이기는 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전쟁하는<sup>ㄹ</sup> 하느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권력을 가진 세력과 싸우는 것이어서 어린양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인내 하나로써 이기는 자가 됩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환도가 위 끝 되는<sup>ㄴ</sup> 산고가<sup>ㄷ</sup> 있더라도 메시아를 끝까지 붙잡아서 이산고의 환난을 넘겨야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참 이스라엘이<sup>ㄱ</sup> 됩니다.

목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산고만 넘기면 하느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과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sup>ㄷ</sup>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죽는 환난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sup>ㄹ</sup> 그 이후로 전개되는 왕국의 백성이<sup>ㅎ</sup>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상속 받고<sup>ㄴ</sup> 그들의 주와 더불어 천하 만국을 다스릴 만왕(萬王)이요 만주(萬主)들이<sup>ㄴ</sup> 될 그 왕권이요 주권입니다.

사람 자체가 하느님의 모형이듯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천하의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sup>ㄴ</sup>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들의<sup>ㄴ</sup> 모형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救贖)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를<sup>ㄴ</sup>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하시어 가르쳐주신

ㄱ. 계10:8~11   ㄴ. 계14:6   ㄷ. 계2:7, 11, 17, 26, 3:5, 12, 21, 21:7   ㄹ. 계11:7, 12:17   ㅁ. 계19:14   ㅂ. 계13:10   ㅅ. 눅8:15, 21:19   계14:12   ㅇ. 계3:10   ㅈ. 창32:25   ㅊ. 계 12:2   ㅋ. 창32:28   계7:4   ㅌ. 창2:3   계20:6   ㅍ. 마24:22   계7:14, 12:6   ㅎ. 계21:3   ㅊ. 마25:34   갈3:29   약2:5   계21:7   ㅊ. 마19:28   계3:21, 5:10, 17:14, 19:16   ㅋ. 마5:5   ㄴ. 계21:7   ㄴ. 계7:4~8, 14:1~5   ㅍ. 계14:4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어<sup>ㄴ</sup> 구속(救贖) 하시면서 그들을 일컬어 당신의 군대라고<sup>ㄴ</sup>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장자라고도<sup>ㄷ</sup>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가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자녀 중에서도 장자입니다. 하느님의 처음 열매, 곧 별과 같이 많은 제 삼위의 하느님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라고<sup>ㄴ</sup> 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인물로써 하느님의 거룩하신 삼위를 표현하신 표호(表號)입니다.

이 말씀에 어린양께서 하느님은 산 자의 하느님이라고 토를 달아 주셨습니다. 이 토로 말미암아 성서의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느님이시니 곧 천지의 유일하신 대주제이시오. 그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또한 하느님이시니<sup>ㄴ</sup>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이시오.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태어남으로써 그들 또한 주라는 의미의 만주(萬主)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신이 아니라 주이시니 여호와는 주상(主上)의 성호입니다. 하늘에 좌우로 계신 아버지와 어린양께서는 하느님의 하느님이시오. 곧 천상의 원군(元君) 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빛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의 어린양과 하나가 되어 그 삼위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sup>ㄷ</sup>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도성이어서 성서는 하느님의 독생자와 이 땅에 임할 그의 나라를 증언하시는<sup>ㄷ</sup> 증거입니다.

ㄱ. 출12:1~28 ㄴ. 출6:26, 7:4, 12:17, 12:41, 51 ㄷ. 출4:22 ㄹ. 시82:6 요10:34~35 ㅁ. 출3:15 ㅂ. 마22:32 ㅅ. 요1:1, 18 요1서5:20 ㅈ. 롬9:5 ㅊ. 시110:1 마22:43~45 ㅋ. 요10:34 계17:15, 19:16 ㆁ. 신10:17 수22:22 시136:2 단11:36 ㄷ. 딤후전 6:15 계1:5, 17:14, 19:16 ㅅ. 창1:2 ㅈ. 눅16:9 요14:2~3

성서에서는 그 거룩한 만왕이요 만주들을 하느님께서 이마에 인(印) 치신 자들로 계시하셨습니다<sup>ㄱ</sup>.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도장이요, 유일하신 하느님과 그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제 삼위의 거룩한 신분이어서<sup>ㄴ</sup>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sup>ㄷ</sup>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안에 계시고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들들 안에 어린양께서 계시고 어린양 안에 아들들이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아버지와 독생자와 아들들의 삼대가 다 하나가 됨을<sup>ㄴ</sup>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어린양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아버지와 음양으로 연합하여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아버지와 어린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패(印牌)가 양좌음우(陽左陰右) 태극이요, 어린양과 그의 성도 또한 음양으로 연합하여 태극이나 하늘에서는 음이셨던 어린양께서 당신의 성도에게는 양이시어서 뒤집어진 태극입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그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서 야곱이 이겼다고 주신 이름입니다<sup>ㄷ</sup>. 새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용이 조수를 만나 승천한다고 하듯, 인생이 의롭고 선하신 주를 따르는 길에 부딪치는 핍박과 모욕은<sup>ㄴ</sup> 하느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복 앞에 필연이 부딪치는 과정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火焰劍)이 있습니다<sup>ㄴ</sup>. 화를 거처서 복입니다. 온갖 오명과 누명을 쓰셨던<sup>ㄴ</sup> 어린양께서 세상을 이기신<sup>ㄴ</sup> 것과 같이 백마 원수(元帥)를 따라<sup>ㄴ</sup> 세상과 싸워서 그

ㄱ. 요5:39 ㄴ. 출31:13 계20:6 ㄷ. 계14:1 ㄹ. 요17:21~23 ㅁ. 창32:24~32 ㅂ. 마5:10~12 막10:30 눅11:49, 21:12 요15:20 ㅅ. 창3:24 ㅈ. 사53:3 눅2:34, 7:34, 11:15 ㆁ. 요16:33 ㆁ. 계19:11~14

원수께서 이기신 그대로 뒤따라 세상을 이기는<sup>ㄱ</sup>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군대이고 하느님의 장자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의 성전은 이세의 뿌리에서 순으로 나신<sup>ㄴ</sup> 예수 그리스도와<sup>ㄷ</sup> 그를 따르는 그의 종도들입니다<sup>ㄴ</sup>.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sup>ㄷ</sup>.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을 따라 난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이 아니라 이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sup>ㄴ</sup>. 이마에 인(印)을 맞아<sup>ㄴ</sup> 진짜 이스라엘이 된 자들의 수가 창세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류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를 따라 순교를 한 성도들과 주께서 다시 오실 말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 맞서서 끝까지 버티면서 만민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는 성도들인데<sup>ㄴ</sup> 나중 된 자들의 수가 먼저 된 자보다 많아서<sup>ㄴ</sup> 상제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긴 자』라는 뜻이오. 혈육의 민족이 아니라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육백육십육을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수십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점지받아,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얻어 이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음으로써 주를 향한 진실을 증명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그와 같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심판할 군주들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께서 계시는 거룩한 도성의 기초 석이 모두 열둘인데 그 기초 석들의 이름이 어린양의 열두 제자입니다. 그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이 건축물이 아니라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ㄱ. 요일5:4 계6:1~2 ㄴ. 사11:1, 10 ㄷ. 요2:19~21 ㄹ. 고전3:16 ㅁ. 요3:6, 8:37~44, 10:16 롬9:8 갈3:29 계7:4~8  
 ㅂ. 요1:49, 12:13, 18:37 ㅅ. 계7:1~4 ㅇ. 계12:17, 20:4 ㅆ. 마19:30 막10:31 ㅈ. 요8:21~23, 38~44 롬9:8 갈3:28~29  
 4:29 계2:9, 3:9 ㅋ. 계15:2 ㆁ. 계17:14 ㆂ. 눅4:6 계13:1~8 ㆃ. 마19:28 ㆄ. 마24:9 ㆅ. 단7:27 고전6:2~3 계19:11~14,  
 20:4~6 ㆆ. 계21:14 ㆇ. 계3:12

그 도성의 머리 돌이 천자이시오.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고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하게 되리라고 한 것이고 요한이 받은 계시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라고 가르치시어서 주(主)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자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한자를 파자(破字) 하여 보면 임금 왕(王) 자는 열두 자이고 임자 주(主)는 열두 자에 머리가 있어서 열석 자입니다. 곧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열두 지파를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원군(元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던 가롯 유다가 빠지고 그 대신 맛디아가 점지 되어 뽑혀서 열둘이 되었으므로 계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혈통의 열두 지파 이름이 아니라 하나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지파마다 이긴 자의 수가 일만이천인데 십이 지파여서 모두 십사만 사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단(壇)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웠듯이 열두 기둥으로써 이루어진 성전이 다름 아닌 참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글을 낭독한 후 번제(燔祭)와 소로 하나님께 화목제(和陸祭)를 드렸던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라고 하였습니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그 명절에 먹는 음식을 차려서 명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ㄱ. 마21:42~44 요2:19~21 ㄴ. 단2:34~35 ㄷ. 계1:5 ㄹ. 마21:9, 23:39 요12:13 ㅁ. 계7:1~8 ㅂ. 행1:26 ㅅ. 계7:4~8  
 ㅇ. 출24:4 ㅆ. 출24:4~8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으시는 화목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곧 하나님께서 생산하시는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양이십니다. 세상에 먼저 태어난 초(初) 태생(胎生)은 모두 죽는 재앙에서 그 재앙이 유월(逾越)하여 하느님의 장자는 재앙에서 살린 어린 양은 바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 어린양께서 가라사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상이나 건축물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니 하느님과 그의 독생자가 곧 성전이오.

그 어린양과 처녀가 혼인하여 인생이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서야 하느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만이 인생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여야 할 우리의 낭군이요 신랑입니다. 어린양께서 하느님과 하나이시듯 하느님의 어린양과 인생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섭리를 어린양의 혼인으로 비유하시어 가르치신 계시가 하느님의 언약이고 성서입니다. 조선의 풍속에 혼인할 신랑을 의미하도록 신랑이 태어난 년월일시를 쓴 문서를 궤(함)에 담아 그 궤를 함지기 몸에 묶어서 장가에 보내면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시집에 보내 혼례식을 하였습니다.

ㄱ.마26:26~28 ㄴ.히9:15 요일2:2, 4:10 ㄷ.행3:25 롬9:8 ㄹ.고전5:7 ㅁ.출 12:1~14 ㅂ.계3:12 ㅅ.출20:4 ㅇ.요 2:19~21, 4:20~24 고전3:16~17, 12:27 고후 6:16 엡2:21 계3:12, 21:22 ㅈ.마25:1 ㅊ.마9:15 ㅋ.요17:11, 21~22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문서가 든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하지 않고 가마를 만들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고향 가족들이 지도를 하신 하느님의 명이 있어서 그 민족이 진행할 때면 여러 사람이 동으로 묶여서 언약궤를 지고 행진(行陣)하였습니다.

혼인할 신랑의 언약을 충성을 바쳐서 진실하게 믿는 그 충신(忠信)과 진실을 지키려고 싸우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 태생이면 죽어서 애굽의 집집이 곡소리가 요란하던 날에 히브리 백성 중에 군병이라고는 한 사람조차 없었거늘,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군대를 빼내시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전쟁을 위한 군대입니다. 창칼이 아니라 공의(公義)로 싸우는 어린양의 군대입니다.

백마와 그 탄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오. 전란과 기근과 괴질의 다른 색을 가진 말들이 온 세상을 횡행하는 재앙의 때, 어린양에 앞서 백마도 같이 나와서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 군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성서에 당신을 일컬으실 때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거듭거듭 밝히신 만군(萬軍)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만군은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만주(萬主)라는 의미도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칠혹 같은 미명에, 재림하시는 천자에 앞서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신 작은 책을 먹고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알리는 소리가 우레입니다.

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가 그의 주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오. 그 책은 입에는 꿀 같이 단 영원한 복음이나 먹고 나면 쓰디쓴 시련에 봉착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ㄱ.민4:15, 7:9 ㄴ.출7:4, 12:17, 12:41, 51 ㄷ.계17:4 ㄹ.계19:11 ㅁ.계6:1~8 ㅂ.계11:6 ㅅ.시편24:10, 48:8, 59:5, 84:8 ㅇ.계17:14, 19:16 ㅈ.속4:14 계11:4 ㅊ.계1:1 ㅋ.마 25:6 계10:1~4, 11 ㅌ.계10:8~11 ㅍ.막3:17 ㅎ.계14:6

우리는 세상을 책망 하시는 ㄱ 성령의 말씀이어서 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ㄷ 것이고 그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시련입니다.

일 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어서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황급히 무교병(無酵餅)과 함께 쓴 나물을 먹었던 ㄹ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간 것 같이, 말세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ㅁ 성도의 환난이 ㅂ 임하면 누룩이 ㅅ 없는 양식을 먹는 어린양의 교회는 황급히 박해하는 자의 낫을 피해서 도망하여 ㅇ 잠깐 동안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ㅈ.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군대입니다. 천만인이 죽는 그 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세상의 권세와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말세의 증인들은 이후로 전개되는 ㅊ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어서 예언을 ㅋ 하는 자입니다. 왕국이 임할 그때가 결국 코앞에 다가왔기 황급히 온 세상에 다시 하는 예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초월하여 땅과 바다의 온 세상에 우리와 같이 ㅌ 울려 퍼지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기존의 기독교가 말세에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주고 있다면 ㅎ,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회개케 하시려고 ㅑ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건만 인생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자그마치 이천 년을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ㄱ. 요16:8 ㄴ. 마10:20 ㄷ. 계11:6, 10 ㄹ. 출12:8~11 ㅁ. 단12:7 계11:7 ㅂ. 요 16:33 ㅅ. 마16:11 눅12:1 ㅇ. 마24:20 계12:6 ㅈ. 요18:36 계13:10 ㅊ. 계1:1, 22:7 ㅋ. 단12:10 계22:10 ㅌ. 단4:3, 34, 7:14, 27 ㅎ. 계14:6, 22:7 ㅑ. 막1:15 눅5:32

대재앙을 경고하시려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 종들에게 표적까지 나타나게 하시어서 ㄱ 끝까지 인생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건만 세상은 그들마저 잡아 죽이는 ㄴ 것입니다.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이기도 한, 육백육십육의 권세가 천하의 만민을 미혹하여서 ㄷ 천하를 장악한 짐승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어린양의 사자(使者)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ㄹ 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것이어서 어린양의 예언대로 당신의 성도들이면 부딪치게 되는 성도의 환난입니다 ㅁ.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나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ㄱ. 마10:5~8 막16:17~20 계11:3~6 ㄴ. 마23:34 계11:7 ㄷ. 마4:8 계12:9 ㄹ. 계 11:7 ㅁ. 요16:2,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들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고 7 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추수할 일군을 말씀하신 2 직후, 상제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말씀이나 자세히 읽어보면 장차 상제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2,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알곡을 모으는 일군들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일의 일군들은 예언하는 2 자들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2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께서 언약하신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2 증언하는 것이고 그들이 증언하는 메시아의 이름을 인하여 2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군들입니다.

상제께서 오시어 친히 2 다스리시는 나라가 2 앞에 이르렀으니, 가까이 이른 2 그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어서 자기 나라를 가진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임금이라는 이름을 인하여 2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집안 식구까지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하는 2 때가 오는 것은 그들이 증언하는 그 임금께서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임의 기운으로 만국을 치시는 2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ㄱ. 마10:5~23    ㄴ. 마9:38    ㄷ. 마10:21~23, 24:7~14    계7:14~15    ㄹ. 계1:3, 10:11, 11:3, 22:10    ㅁ. 고전1:17~18, 2:2 골1:20    ㅂ. 계22:20    ㅅ. 마10:22    ㅇ. 계19:15    ㅆ. 마10:7    ㅈ. 마10:22    ㅋ. 마10:21    ㅊ. 살후2:8    계19:15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오셔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실 지도자를 2 따르는 자와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편에 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고발을 당하면 죽는 데로 넘겨지는 2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감히 만국을 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2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천하의 만국을 치신다는 2 말씀을 당당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국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왕국을 2 전하는 것이오. 이에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공회에 넘겨서 고문을 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삼가고 2 합당한 자를 찾아 황급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군들이 일하는 때는 씨를 뿌리던 일군들로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로부터 세상에 이미 전파되어 있는 때입니다 2. 이때는 외형으로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내용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2 있고 당신의 양이 있어도 그 짐승에게 『잃어버린 양』 이 2 있는 때이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2 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건만 외식으로 변질하여 그들이 깨끗함을 받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하였기 2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마음속에 계명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명대로 행동하여야 하거늘 2 오히려 혼인 잔치에 초대받지 2 못한 사람보다 더 인위적이고 가식적이며 자기네의 권익과 욕망만을 쫓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ㄱ. 마16:28, 23:39    ㄴ. 계13:15    ㄷ. 마28:18    ㄹ. 계19:15    ㅁ. 마10:7    ㅂ. 마10:17    ㅅ. 요4:36    ㅇ. 막16:15    ㅆ. 계13:11    ㅈ. 마9:36, 10:6    ㅋ. 마10:16    ㅊ. 마12:45    ㄴ. 눅11:26    ㅍ. 마12:44    ㅎ. 마22:8

기독교가 일찍이 보편화한 나라일수록 하느님께서 주신 법과 언약은 무시를 당하고 그 반대로 인간이 만든 법과 인간의 과학이 신봉되며 살인을 위한 무력을 더 많이 비축하고 재화만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금수가 새끼를 낳고 키우다가 새끼가 크면 더는 동거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욕정을 찾아 유리하듯, 그들 사회에서는 부모를 모셔서 공경하는 집이 없고 청소년이라도 거리낌 없이 이성의 애인을 가지고 욕정까지 채우면서도 이를 그들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권고하는 모임이 교회건만 하느님의 신명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모시며 순결을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비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백성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지경입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뉘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여도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친히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임금의 편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짐승의 편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한 때,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일군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자는 기독교인들보다는 혼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였던 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았던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 아니므로, 도리어 초대를 받지 못한 자들을 하느님께서 강권으로 불드시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를 채우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외식이 퍼져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좇은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영화를 좇는 자가 오실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ㄱ.마6:24    ㄴ.마18:15~20    ㄷ.마3:10, 7:19~21    ㄹ.마12:45    ㄺ.눅16:8    ㄻ.계13:8    ㄼ.마22:8    ㄽ.마22:1~14    ㄾ.눅14:16~24  
 ㄿ.마7:21    ㅀ.마6:33

기독교인 중 재림하실 주를 진실로 기다리는 자가 있듯이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 중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불도인들 중에도 세상에 오실 당래불(當來佛)을 기다리며 유도를 닦는 자 중에도 인륜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세태를 개탄하며 후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말세에 증언할 종을 두 증인이라고 하셨듯이 그 목자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말일의 메시아의 일군들이 가진 것은 신학교의 학위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권능일 뿐입니다.

교파의 이름으로 문과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신들만의 특권을 쥐고 앉아 교인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샅을 받는 일군과는 달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 성령의 은사(恩賜)를 거저 베풀며 일하는 일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가르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병자를 구하는 것 같은 이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같이 다녔고 바울도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사와 같이 전도의 길을 떠나 학문으로 배우지 않은 지식을 기탄없이 증언하고 성령으로 표적을 일으켰던 일들이 사도의 행적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일군을 사도(使徒)라고 하였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곧 사역자라는 뜻이요, 목자는 하나이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의로 사역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서 하느님의 명을 받았던 사역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한 자들 앞에서 학문으로 배우지도 않은 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진리를 증언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힐난을 받습니다.

ㄱ.신19:15    ㄴ.민35:30    ㄷ.계11:3    ㄸ.막6:7    ㄹ.눅10:1    ㅀ.행13:4    ㅁ.마10:1    ㅂ.행1:18    ㅃ.마10:8    ㅄ.고전12:8    ㅅ.행3:1~10  
 ㅇ.행13:2~12    ㅆ.행4:13~14    ㅈ.마2:6, 23:10    ㅊ.요10:14~16    ㅋ.렘23:21, 25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의 제자가 된 시몬 형제는 기존 종교인과 다른 신앙을 가졌던 침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계시를 받던 옛 선지자들과 같은 계통의 일군이 나타나서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그 민족에게 임박한 하느님의 진노를 예고하며 회개를 외쳐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자가 그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는 무대가 세계로 넓혀져서 또다시 하느님의 종들이 일어나 온 세상에 임박한 하느님의 진노를 예고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오시는 그들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캄캄한 미명에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고 모두 신랑을 맞는 것이 아니요. 기름이 있어 등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습니다. 기름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마음에 계셔야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천사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세상 끝에는 이른 비보다 더욱 크게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을 무대로 다가올 새 국권을 예언하는 것이어서 이 세상의 권력은 결국 이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오실 기약을 하신 임금을 향한 충절을 세상 나라는 용납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처형하였듯,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치 못하게 만든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일에 성도들이 겪는 잠깐의 환난입니다. 말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는 외형만 어린양의 교회일 뿐, 실상 이 세상에 속한 종교 단체입니다.

ㄱ. 요1:35~42    ㄴ. 마3:7    ㄷ. 마3:3, 11:10    ㄹ. 마24:44, 25:10    ㅁ. 마25:6    ㅂ. 마 25:1~13    ㅅ. 율2:28~32    ㅇ. 단2:44  
 ㅈ. 계10:11    ㅊ. 계11:7    ㅋ. 단3:6    ㅌ. 계 13:15~17    ㅍ. 계20:4    ㅎ. 사54:7~8    단12:7    ㅊ. 요16:33    계1:9

어린양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받는 핍박이 아무려면 십자가를 지신 그의 주보다 더 크기야 하겠으리요. 그러나 상제께서 핍박을 받으셨듯 핍박을 받아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 주의 종입니다.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들이 하느님이라고는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이 아니라 하느님을 안다고 하던 종교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이었듯, 그리스도의 계시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피에 취한 자가 음녀(淫女)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재앙을 알리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국왕에 아부하며 권세를 누리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참소하였으며 하느님께서 마침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도 스스로 기록한 책 하던 종교인들이 그 독생자마저 참소하였고 세상 끝에도 그같은 종교 세력이 예수의 증인을 참소하여 죽이게 합니다. 이 음녀가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쥔 짐승은 둘입니다.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는 짐승과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요. 열 뿔은 열 왕이어서 정치 세력이고 새끼 양 같은 두 뿔은 그 모양이 하느님의 어린양과 같은 종교 세력입니다.

ㄱ. 요15:18~21    ㄴ. 계1:9    ㄷ. 요9:39~41    ㄹ. 요19:12    ㅁ. 계17:6    ㅂ. 렘5:31    ㅅ. 마9:11    ㅇ. 막12:7    ㅈ. 계13:11    ㅊ. 계13:1    ㅋ. 계17:12

한쪽은 공권력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권세이고 또 다른 짐승은 열 뿔 가진 정치 세력을 타고 앉아 어린양의 종들을 참소하여서 관원에 넘겨 죽이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꾀 표방하는 종교 세력입니다. 옛 뱀이 간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연 다른 뜻으로 유도하여서 사람을 미혹하였듯이 양의 탈을 쓰고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며 예수님의 증인들이 흘리는 피에 취한 음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이요, 영적 임금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본대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셨듯이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재림하셔서 친히 만민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셨던 자이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육체가 승천하신 그대로 육체로 임하셔서 당신을 따랐던 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명분은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음녀에게는 저들의 실질적 임금이 따로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인하여 저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 교라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몸이라고 주장하여서 어떤 자는 제자에게 성령으로 이미 임하신 것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등, 어떤 자는 교인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신다는 등 성서에 없는 설들을 지어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인즉 예수는 육신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임금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고 천국이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ㄱ. 요16:2    ㄴ. 창3:1~5    ㄷ. 계18:3    ㄹ. 사9:6    마2:6, 5:35, 23:10    눅1:33    요12:13, 18:37    ㅁ. 요17:2    ㅂ. 행1:11    ㅅ. 사40:10    계11:7, 19:15, 21:3    ㅇ. 요1:14    요일4:2    ㅈ. 눅24:39    요20:26~29    ㅊ. 마19:28    눅22:30    계20:4~6    ㅋ. 계5:10    ㅌ. 요15:21    ㅍ. 요2서1:7    ㅎ. 단2:44, 4:17, 7:14

예수께서 그의 종들을 위하여 주신 그의 계시와 말씀하신 교훈에 상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설입니다. 삼위일체 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정되는 설이요, 성서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설이어서 그 해설을 꺼리면서도 그 단어로 신조와 송가를 지어 예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도록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모든 외식이 바로 이 거짓 설로부터 비롯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느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인간이 지은 고대 문학으로 취급되어 왔고 실행하여야 할 신앙의 실질적인 행실은 사라지고 외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말씀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성직자가 되라는 말씀은 도무지 없건만, 저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샅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스스로 하느님과 교인 사이의 중보자 노릇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의미 그대로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종도들이 이 세상에 없는 자가 아니듯 천국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보이게 않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sup>ㄷ</sup> 하셨습니다.

ㄱ.계1:1   ㄴ.요2서1:7   ㄷ.요서2:22~23   ㄹ.행1:8   계11:3   ㅁ.요10:9~16   ㅂ.마23:10   ㅅ.요15:19   ㅇ.요18:36   ㅈ.눅17:21   ㅊ.요일4:2~3, 7   ㅋ.계1:6, 5:10   ㅌ.마6:33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것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느님께 속하여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sup>ㄷ</sup>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sup>ㅇ</sup>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나의 속에 임하여서 나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느님의 보혜(保惠)를<sup>ㅈ</sup> 받지 못합니다.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어서 결국 하느님의 심판을<sup>ㄷ</sup>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sup>ㅋ</sup>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sup>ㄷ</sup> 전파하라고 하시어서 그 가까이 이룬 나라의 증인이<sup>ㅌ</sup>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때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중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셨듯이 때가 이르면<sup>ㅎ</sup>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 같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재림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는 조화로 만국을 쳐부수고 이 땅에 세우실 성도의 나라입니다<sup>ㅌ</sup>.

ㅊ.계21:3~4   ㅇ.마6:10   ㅈ.계7:15~17   ㅋ.계6:10   ㅋ.마4:17   ㅌ.마10:7   ㅌ.마 24:14   ㅎ.단7:22   ㅌ.단2:44   계2:16, 19:15   ㄱ.마24:44, 25:10   ㄴ.마25:6   ㄷ.마25:1~13   ㄹ.단2:44   ㅁ.계10:11   ㅂ.계11:7   ㅅ.단3:6   ㅇ.계13:15~17   ㅈ.계20:4   ㅊ.요일6:33   ㅋ.계2:7, 11, 17, 26, 3:5, 12, 21:7   ㅌ.단2:44   계2:16, 19:15   ㅌ.계1:13~16, 17:14, 19:11~16   ㅎ.사42:1~4   ㄱ.계6:4   ㄴ.마 24:7   ㄷ.계6:5   ㄹ.눅21:11   ㅁ.계13:4   ㅂ.계9:14   ㅅ.마6:10   ㅇ.단2:44, 4:3, 34, 6:26, 7:14, 27, 미4:7   ㅈ.계21:22   ㅊ.계21:2   ㅋ.사7:14   ㅌ.계21:14   ㅌ.계21:23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쪽의 희생을 가르치신 천자의 계명을 자신이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저야 할 자기 십자가이어야 하거늘<sup>ㄱ</sup>, 작금의 기독교는 외식으로 변질하여서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문양이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에 돈으로 매수된 장정들로 만들어진 군대가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광란의 살인과 방화와 음행을 일삼았어도 그들에게 십자가의 표시를 붙여서 마치 그리스도의 군대로 보이도록 하였듯이, 어린양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교훈이 한낱 시각적인 형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이 인체의 형상으로 신들을 만들어 세운 전당이었던이 하느님 앞에는 있어서는 아니될<sup>ㄴ</sup> 형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형상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물질로 만든 형상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사를 목적으로 세운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sup>ㄷ</sup> 사람이 지은 건물이<sup>ㄹ</sup> 거룩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하여 범 세계적 지배 체제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그 체제를 상징하는 형상을 세계의 중앙에 세워서 만국의 백성이 그것에 경배하도록 함으로써<sup>ㅁ</sup> 전 인류의 사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요.

인류가 인류의 역량으로써 인류의 항구적 안전과 번영을 달성하자는 이 공화주의의 사상에 인류가 미혹됨으로써 천지의 대 주제를 배반하고 재립하시는 천자에 대적하여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래 땅에서 사는 인류는 인간으로서 먼저 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위하고 다음으로 자기네가 아닌 이웃을 위하는 사랑으로써 살아가도록 지어져 있는 것이요.

ㄱ.마10:38, 16:24    ㄴ.출20:4 레26:1    ㄷ.신4:16    ㄹ.막13:2    ㅁ.마24:15 계16:2    ㅂ.계16:14    ㅅ.눅10:27

사람이 만든 법과 하느님께서 명하신 법이 상치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 이윤과 권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에서 부림을 받으며 살다가 국가에서 제정한 공휴일이 되면 십자가의 형상을 세우고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 성(聖)자를 붙인 전당에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며 사제들의 축사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를 찾아가서 뵈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요 ㄱ. 진리의 신이 마음 속에 임하시어서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속에 새겨 있으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계셔야 할 그 기록하신 신령은 계시지 아니한데, 체색으로 찬란한 모양을 내고 물질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꾸민 전당을 찾아가 경배를 한들 그 예배는 성전 밖 마당에서 참배하는 ㄴ 의식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단번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듯이 어린양의 계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성령과 진리로 하느님께 드리는 참 제사입니다 ㄷ.

선한 자는 하느님밖에는 없습니다 ㄹ. 사람 속에 하느님에게서 임하는 선한 것이 있어서 선행을 하여야 비로써 낮을 들어 하느님을 뵈올 수 있습니다 ㄱ.

ㄱ.요4:21    ㄴ.계11:1~2    ㄷ.히9:26    ㄹ.롬12:1 베전2:5    ㅁ.눅18:19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형제를 희생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하는 자이어서 도리어 형제보다 낮은 자리에 꿇어 앉아 형제의 발을 씻겨 줍니다 ㄴ.

하느님께서 열 가지 천명을 친히 새기셔서 인생에게 주신 두 석판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 언약 궤입니다. 사람이 하느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 넷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여섯이어서 좌우명의 두 석판이 안치되어 있는 궤입니다.

단순히 그 석판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든 궤가 언약 궤가 아니라, 그 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至聖所)라고 하여서 그곳에서 만이 하느님께서 인생을 만나시는 것이어서 ㄷ 궤 속의 그 계명은 기록하신 하느님의 몸입니다. 말씀이 곧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ㄹ.

ㄱ.창4:7    ㄴ.요13:14    ㄷ.출26:33    ㄹ.출30:6, 36    ㅁ.요1:1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어서 그 보좌에 계신 천부와 좌우가 되어 ㄴ 하나이신 ㄷ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어 ㄹ 그들과 음양으로 하나를 이루시니 천부와 천자와 그 천자를 따르는 성도들의 석삼위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ㄹ.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과 인간이 거하는 지상이 통일되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트이고 ㅂ 하느님과 인생이 동거하는 ㅅ 신천지가 개벽되는 것이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느님의 첫 열매는 천하를 다스릴 땅의 임금들이고 ㅁ 빛의 아들들이어서 ㅅ, 일컬어 임금 군(君)에 아들 자(子), 도통 군자(君子)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ㅅ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옵는 천자의 나라입니다.

독생 하신 하느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하신 신이 인생에게 임하시어서 온전하신 하느님과 같이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들이<sup>ㄱ</sup> 생산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독생자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천하를 상속 받은<sup>ㄷ</sup> 소유주가 되어 만국을 초자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도통한 군자들이 십이 제국의 각 제국에 일만 이천씩 있어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며 가르치는 신천지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죄인에게 위법의 책임을 물어서 형벌을 가하나 그 사람이 범법을 저지르도록 여건을 조성시킨 사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열 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인간이어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